한국어 영형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에 대한 최적성 연구

김 미 영
(인천대학교)

Kim, Mi-Young. (2005).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to the syntactic distribution and the reference of zero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1(1), 31-4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syntactic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the Korean zero forms by the approach based on optimality theory. Korean has the frequent and pervasive use of zero forms. Korean zero form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syntactic distribution and uses-deictic, general and anaphoric. In order to explain those types, five universal constraints proposed by Speas (1997, 2001), and Grimshaw et, al. (1998) are introduced; SUBJECT, FULL-INT, BTB, MAX(PRO), CONTROL. Syntactic distribution and the reference of the Korean zero forms are explained by establishing the different ranking of these constraints. The general zero subject is explained by the following ranking of constraints; FULL-INT > SUBJECT. And the deictic zero subject is explained by the following ranking of constraints; CONTROL > MAX(PRO). Finally anaphoric zero forms are explained by the following ranking of constraints; BTB > MAX(PRO) > CONTROL.

Key words: zero forms,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ranking, evaluation

1. 서 론

이 논문은 한국어의 영형(zero forms)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를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OT)적 방법으로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영형은 비한정 절의 주어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한정 절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분포하는데 각각 그 확인(identification)의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general) 영 주어와 화시적(deictic) 용법의 영 주어(null/zero subject), 그리고 담화상의 대용(anaphoric) 기능을 하는 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분포에 따른 영형의 기능적 차이는 보편 제약(universal constraints)의 서로 다른 등급(ranking)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형의 통사적 분포는 언어마다 다른데, 이러한 언어 유형론적 차이가 보편 제약의 서로 다른 위계 설정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편 제약은 Grimshaw et al. (1998), Speas (1997, 2001)가 제시한 보편 제약이다. 먼저, 이들이 제시하는 보편 제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어 영형의 기능에 따른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를 보편 제약의 서로 다른 등급 설정으로 설명해 본다.

2. 최적성 이론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OT)은 Prince and Smolensky (1993, 1997)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최적성 이론은 여러 가지 가능한 후보자들 중에서 보편적인 제약과 제약 순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론이다. 음운 이론에 처음 도입된 이 이론은 규칙, 규칙 순 그리고 도출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출력형에 대한 제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기술을 시도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하나의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 많은 수의 가능한 후보자들을 생성해 내고, 이 후보자들 가운데 상대적 상위 제약을 만족하는 후보자일수록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1) 최적성 이론의 문법 구조(Prince와 Smolensky 1993: 4)
  a. Gen(INP) ---> {Out1, Out2,...}
  b. H-eval(Out1, $1 \leq i \leq \infty$) ----> Output real

하나의 입력형(Input, INP)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생성자(Generator, GEN)는 가능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 일련의 후보자(Out1, Out2, ...)들을 만들어 낸다. 즉, 적격성 평가자(Harmony evaluation, H-EVAL)는 생성자가 만들어 낸 수많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합하지 못한 것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한다. 즉, 생성자는 입력형에 적용되어 후보자 출력형들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적격성 평가자는 출력형 후보자에 적용되어 출력형을 생산해 내는 기능을 한다. 이런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약(Constraint)으로, 이런 제약은 언어 보편적이어야 한다.

생성자의 기능은 가능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생성해내는 것이지만, 그 후보자를 얼마든지 만들어 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성자의 기능을 제어하는 원칙의 필요성을 McCarthy와 Prince (1994: 88-89)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2) a. 분석의 자유(freedom of analysis)
  b. 포함성(containment)
  c. 구현의 일관성(consistency of exponence)

a는 구조를 마음껏 설정할 수 있어 어떤 후보 형태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한 수의 후보형은 정보 처리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성자에 약간의 제한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b이다. b는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연결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성자가 입력형으로 주어진 요소들을 가지고 그 구조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생성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후보형들이 도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c 역시 생성자의 생성 능력에 한계를 긋는 역할을 한다.

Kager(1999)에 의하면, 최적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 이론이다.

(3) The Optimality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grammar, or language in general, is a system of conflicting forces, which are embodied by a series of constraints that can be either observed or violated by an output form.

제약들은 위계적으로(hierarchically) 등급(ranking)을 갖는다. 등급의 설정은 하위 등급의(lower-ranked) 제약이 상위 등급의(higher-ranked)의 위반(violation)을 피하기 위해 위반되어질 수 있다. 제약은 보편적이지만 위반 가능하다. 이러한 최적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 최적성 이론의 기본 원리

Kager(1999)는 최적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로 구성한다.

(4) a. 제약의 보편성(universality)
보편 문법에서 제공하는 제약들은 언어 보편적인 것이다.
b. 위반가능성(violability)
제약은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반은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
c. 제약의 위계(ranking)
제약들은 언어 보편적인 것이며, 개별 언어는 각각의 제약 등급을 갖는다. 또한 제약들의 위계는 엄격 지배 (strict dominance)의 관계에 있다.
d. 포괄성(inclusiveness)
제약 등급에 의해 평가받는 일련의 후보들에 대한 분석은 그 구조적 인적격성을 고려하여 용인된다. 특수한 규칙이나 손질 책략(repair strategies)은 없다.
e. 병행성(parallelism)

제약 등급의 최대 충족은 후보 전체를 등급 전체에 견주어 가늠한다. 순차적인 도출(serial derivation)은 없다.

Kager(1999: 22)는 생성자(GEN), 평가자(EVAL) 그리고 제약들(CON)이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보여 준다.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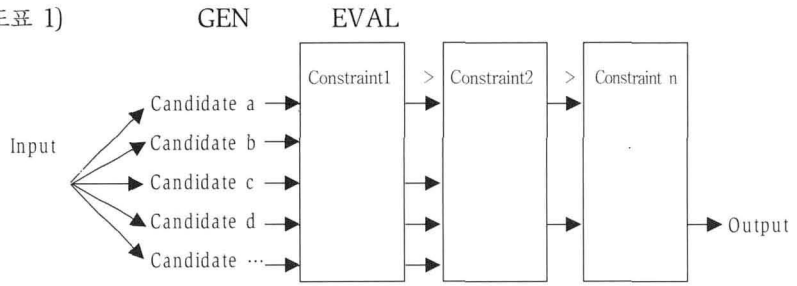

도표 하나를 예를 들어 사용되는 표기 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후보자	제약 1	제약 2	제약 3	제약 4
☞a		**	*	*
b	*!			*

후보자들의 목록(a, b)은 가장 왼쪽 줄에 나열되며, 제약의 위반은 *로 표시된다. 그리고 제약의 등급 위계는 왼쪽에 위치할수록 높다. 최적성 이론에서 제약은 등급 사이의 관계가 엄밀 지배 하에 있다. 따라서 상위 등급 제약의 위반은 하위 등급 제약의 충족으로 보충될 수는 없다. 즉, 후보자 a가 하위 등급의 제약인 제약 2를 두 번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b가 상위 등급인 제약 1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최적의 후보자로 a가 선정된다. 이때 ! 표시는 치명적 위반을 나타내고 ☞ 표시는 최적형을 표시한다. 그리고 음영 표시는 치명적인 위반 이후에 표시해서 이 후보에 대한 다음 순위의 제약의 평가가 최적형 선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Grimshaw et al. (1998)과 Speas (1997, 2001)의 보편 제약

Grimshaw et. al (1998)과 Speas(1997, 2001)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제약[1]을 제안한다.

(5) a. **SUBJECT**: The highest A-specifier in an extended projection must be filled. Grimshaw, et al. (1998)
b. **FULL-INT**: Lexical items must contribute to the interpretation of a structure. Grimshaw, et al. (1998)
c. **CONTROL (CTL)**: A featureless pronoun must be coindexed with the closest c-commanding nominal element in its C-Domain.[2] Speas (1997, 2001)
d. **BINDING THEORY PRINCIPLE B (BTB)**[3]: A pronoun must be free in its Binding Domain.[4] Speas (2001)
e. **MAX(PRO)**: If Pro occurs in the input, then its output correspondent is Pro. Speas (1997, 2001)

이상의 다섯 가지 보편 제약을 이용하여 한국어 영형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를 최적성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시도한다. 그리고 언어들 사이의 유형론적 차이가 보편 제약의 서로 다른 위계 설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

1) 그들은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PPT)의 보편 원칙에 근거하여 보편 제약을 설정하였다. SUBJECT은 PPT의 보편 원칙 중 EPP(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와 동일하고 FULL-INT는 완전해석(full interpretation)과 동일하다.
EPP: Clauses have a subject(unless their predicates have no arguments and the languages lacks overt expletives)
Full interpretation: No superfluous elements in syntactic representations.

2) C-Domain: α is the C-DOMAIN for β iff
a. α dominates β and
b. α dominates some set of checked features γ and
c. γ c-commands β and
d. no other set of checked features c-commands β
(Speas 2001: 401)

3) Speas(1997)에서는 FREE PRN(free pronoun) 제약으로 명명하였다.

4) α is the Binding Domain for β iff α is the least complete functional complex containing β, a governor for β and a SUBJECT accessible to β

4. 영형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

한국어 영형은 그 기능에 따라 통사적 분포를 달리한다. 일반적 기능의 영형은 항상 문장의 주어로서 분포하고 대화상의 일이인칭 주어의 영형 즉, 화시적(deictic) 기능의 영형은 주어 자리에서만 분포한다. 이에 반해 대용적 기능의 영형은 한정절과 비한정절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리고 그 지시에 있어서 일반적 기능의 영형은 해석상의 불필요로 인해 출현하고 화시적 기능의 영형은 문장에서 주어로만 나타나는데 이때 주어의 생략은 술어의 어미가 주어를 통제 즉, 술어의 어미로 인해 주어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는데서 그 출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용적 기능의 영형은 담화 속에서 그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에 따른 영형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는 최적성 이론에 바탕을 둔 보편 제약의 위계 설정을 통해 설명된다.

4.1. 일반적인 영 주어

비담화적 화맥의 생략 유형 중에는 시간이나 날씨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서 항상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영어는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는 허사(expletive) 주어가 항상 명시적으로 실현된다.

(6) a. Ø 추운 날씨다.
b. Ø Samu-i.
c. It is cold.

(7) a. Ø 10시야.
b. Ø Zyuu-zi da yo.
c. It is 10 o'clock.

날씨나 시간을 나타내는 구문에 있어 영어는 비인칭 주어의 실현이 필수적이고 한국어나 일본어는 주어의 생략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일반적인 주어의 실현 형태에 대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차이를 하나의 틀로써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최적성 이론이다. 최적성이론은 제약들 간의 등급 설정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언어의 유형론적 차이를 설명한다. 위 언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SUBJECT 제약과 FULL-INT 제약이 필요하다. 전자의 위반은 주어를 가지지 않는 절이 있을 경우이고 후자의 위반은 실현된 어휘적 표현이 의미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이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시간이나 날씨를 나타내는 술어는 영 주어로 실현되지만 의미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 경우에 있어 SUBJECT 제약을 위반하고 FULL-INT 제약은 만족한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 시간이나 날씨를 나타내는 술어는 주어와 함께 실현되는데 이때 주어는 의미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있어 SUBJECT 제약은 만족하지만 FULL-INT 제약은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두 제약을 동시에 만족하는 출력형은 없다.

살펴 본 예는 언어의 유형에 따른 허사(expletive) 주어의 실현 유무의 차이를 두 제약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 사이의 충돌은 제약들간의 등급 설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설정된 등급 사이에는 엄격 지배(strict domination)의 원리가 작용한다: 상위 등급의 제약은 하위 등급의 제약에 대해 절대적 우월성을 갖는다.

다음 도표에서 서로 다른 제약의 등급 설정을 통해 최적형이 도출되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표 3)

	FULL-INT	SUBJECT
☞ a. Ø 10시야.		*
b. EXPL 10시야.	*!	

만약 FULL-INT제약이 SUBJECT 제약보다 상위 제약이라면, FULL-INT 제약보다 SUBJECT 제약을 만족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로, a 후보자가 b 후보자보다 더 적격하다. 따라서 a는 평가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형으로 도출된다. 만약 SUBJECT 제약이 FULL-INT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이라면 한국어의 허사 주어 구문은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는 후보자 b가 최적형으로 선출될 것이다. 이는 실제 언어 생활과 다른 결과를 예견하므로 한국어의 허사 구문을 설명하기 위한 제약의 등급은 FULL-INT> SUBJECT 이어야 한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동일한 등급의 제약 설정으로 허사 주어 생략을 설명할 수 있다.

(도표 4)

	FULL-INT	SUBJECT
☞ a. Ø Zyuu-zi da yo.		*
b. EXPL Zyuu-zi da yo.	*!	

영어의 허사 구문의 설명을 위해서는 제약들 사이의 등급 설정을 앞에서 살펴 본 한국어와 일본어와는 달리 해야 한다. SUBJECT 제약이 FULL-INT 제약

보다 상위 제약이어야 허사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된 후보자가 최적의 후보자로 선출된다(Speas (1997)).

(도표 5)

	SUBJ	FULL-INT
☞ a. It is 10 o'clock		*
b. Ø is 10 o'clock	*!	

따라서 영어의 허사 구문을 설명하기 위한 제약의 등급은 SUBJECT > FULL-INT 으로 설정된다.

살펴본 언어마다 서로 다른 허사 주어 구문은 최적성 이론에 입각하여 제약의 등급을 서로 다르게 설정함에 의해 하나의 틀로써 설명할 수 있다.

4.2. 화시적 기능의 영 주어

일이인칭 주어가 명시적으로 실현되는 것보다 오히려 생략됨이 자연스러운 화시적 기능의 영 주어 구문을 CONTROL 제약과 MAX(PRO) 제약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8) Ø 점심 먹을래? (이인칭 주어 생략)

생략된 주어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술어의 어미 '-ㄹ래'가 가지고 있는 일치자질이다.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으로서 그 주어는 항상 이인칭이다. 따라서 이때 영형 주어는 술어에 포함된 형태소에 의해 그 정체가 충분히 확인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실현되면 영형이었을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화시적 표현은 술어의 어미가 그 주어를 통제하고 그 주어는 영형으로 실현된다. 이는 CONTROL 제약과 MAX(PRO) 제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전자는 후자보다 상위의 제약이다.

(도표 6)

Ø 점심 먹을래?	CONTROL	MAX(PRO)
☞ ① [$Ø_i$ 점심 먹을래$_i$]		
② [$Ø_j$ 점심 먹을래$_i$]	*!	
③ [너가 점심 먹을래]		*!

평가의 결과 통제 영역 내에 통제자를 가진 영형의 주어를 가진 후보자 ①이

최적형으로 선출된다. 후보자 ②는 영형 주어가 통제 영역 외부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최상위 제약을 위반한다. 그리고 후보자 ③은 상위 제약은 만족하지만 하위 제약을 위반한다.

한국어의 술어의 형태소가 주어를 통제하는 구문에 있어 주어의 생략 현상은 스페인 어나 이태리 어와 같이 술어의 굴절 형태소에 의해 주어가 확인되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 현상은 주어가 전혀 의미 보충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날씨 구문에서 주어 생략 현상과는 다르다. 화시적 기능의 영 주어는 술어가 포함하고 있는 형태소에서 충분히 그 주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는 항상 영형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술어가 주어를 통제하는 구문은 내포되었을 때도 그 생략된 주어를 통제할 수 있다. 내포절의 영 주어에 대해 주절의 논항만이 통제자가 되는 경우가 그 예에 속한다.

(9) a. 영수$_i$가 철수$_j$에게 [Ø$_{i/*k}$ 점심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b. 영수$_i$가 철수$_j$에게 [Ø$_{j/*k}$ 점심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위의 예에서 내포절의 영형 주어가 주절의 특정 논항과만 동일 지시로 확인되는 이유는 내포절 술어에 포함된 형태소 '싶'이 일치 자질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표 7)

Ø 점심을 먹고 싶다고	CONTROL	MAX(PRO)
① [Ø$_k$점심을 먹고 싶$_i$다고]	*!	
☞ ② [Ø$_i$점심을 먹고 싶$_i$다고]		

이때 강조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영형 대신 명시적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시적 대명사가 사용되어도 통제자는 변함없이 주절 주어로 한정되는데 이는 술어의 형태소 '싶'이 주어를 주절의 주어와 동일 지시로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술어에 의해 통제받는 언어로 잘 알려져 있다.

(10) Ø vio esa pelicula.
그녀가 본다 그 영화

(도표 8)

Ø vio esa pelicula	CONTROL	MAX(PRO)
① [$Ø_j$ vio_i esa pelicula]	*!	
☞ ② [$Ø_i$ vio_i esa pelicula]		
③ [Ella vio esa pelicula]		*

한국어의 술어가 그 주어를 통제하는 화시적 표현에서나, 스페인 어에서 술어의 굴절 형태소가 그 주어를 통제하는 구문은 CONTROL제약이 MAX(PRO)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술어가 주어를 통제하는 구문에서 제약의 등급은 CONTROL > MAX(PRO)로 설정된다.

4.3. 대용적 기능의 영형

한국어의 한정절과 비한정절에서 통제받지 않는(uncontrolled) 영형으로 나타나는 주어와 목적어는 대용적 기능을 하는 영대용사이다. 영대용사의 분포와 그 지시는 통제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시적 기능의 영형이나 해석상의 불필요로 분포를 설명하는 일반적 기능의 영형과는 다른 제약의 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3.1. 대용적 기능의 영 주어

다음과 같이 대용적 기능을 하는 주어 자리 영형은 술어에서 어떠한 일치 자질도 발견할 수 없는 통제 받지 않는 영형이다.

(11) a. Ø 철수를 만났다.
b. Ø 철수를 만났니?

위의 주어는 그 지시 대상을 문장 단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대용적 기능의 영 주어이다. 이러한 영형의 분포는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이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형이 문장 외적 요소와 동일 지시로 확인될 때 영형 대신 명시적 대명사가 출현할 수도 있다.

(12) a. <u>그 사람은</u> 철수를 만났다.
b. <u>그 사람은</u> 철수를 만났니?

이때 영형 대신 명시적(explicit) 대용사의 사용은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출력형에서 명시적 대명사의 허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

력형이 명시적 대명사를 포함할 때 이러한 명시적 대명사가 MAX(PRO) 제약의 위반을 유발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면 명시적 대용사가 포함된 후보자도 최적형이 될 수 있다(Speas 1997: 194).

(도표 9)[5]

Ø 철수를 만났다	BTB	MAX(PRO)	CONTROL
☞ ① [<$Ø_k$ 철수$_i$를 만났다>]			*
② [<$Ø_i$ 철수$_i$를 만났다>]	*!		

후보자 ①은 CONTROL 제약은 위반하는 반면 상위 제약인 BTB 제약을 만족하는데 반해 후보자 ②는 상위 제약인 BTB 제약은 위반하므로 최적의 출력형은 후보자 ①로 선출된다.

만약 CONTROL 제약과 MAX(PRO) 제약이 BTB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최적형이 도출될 것이다.

(도표 10)

Ø 철수를 만났다	CONTROL	MAX(PRO)	BTB
① [<$Ø_k$ 철수$_i$를 만났다>]	*!		
☞ ② [<$Ø_i$ 철수$_i$를 만났다>]			*

도출된 최적형은 영 주어가 목적어와 동일 지시로 확인되는 후보자 ②이다. 하지만 후보자 ②는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영 주어를 설명하는데 있어 CONTROL 제약을 BTB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대용적 영 주어는 통제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COTROL 제약이 다른 제약들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정절의 통제받지 않는 영 주어는 만다린 어에서도 나타난다(Li and Thompson 1981).[6]

영어에서는 한정절의 영 주어의 허용이 금지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 주어의 불허용은 CONTROL 제약과 BTB 제약을 MAX(PRO)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으로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13) a. *Ø saw that film.
b. She saw that film.

---

5) < >는 결속 영역을, [ ]는 통제 영역을 표시한다.

6) Speas(1997, 2001)은 Huang(1984)이나 Li and Thompson(1981)과는 달리, 만다린 어에서 주절의 영 주어의 분포가 금지됨을 보이고 있다.
* Ø bu renshi Lisi. (Speas(1997: 196))

영어에서 주절의 주어 자리에는 영형이 허용되지 않고 대신 명시적 대명사만 허용된다. 이는 영형은 통제 영역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통제 제약이 어떤 제약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도표 11)

Ø saw that film	CONTROL	BTB	MAX(PRO)
① [<$Ø_k$ saw that film>]	*!		
② [<$Ø_i$ saw that $film_i$>]		*!	
☞ ③ [<She saw that film>]			*

만약 CONTROL 제약과 MAX(PRO) 제약이 BTB 제약보다 상위 제약이라면 다음과 같은 최적형이 도출될 것이다.

(도표 12)

Ø saw that film	CONTROL	MAX(PRO)	BTB
① [<$Ø_k$ saw that film>]	*!		
☞ ② [<$Ø_i$ saw that $film_i$>]			*
③ [<She saw that film>]		*!	

위의 도표에서 살펴본 대로, 한정절의 영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영어는 제약 등급이 CONTROL> MAX(PRO)> BTB로 설정된다면 비문법적인 후보자 ②가 최적형으로 설출된다. 따라서 한정절의 주어 자리에 명시적 대명사만을 허용하는 영어에서 문법적인 후보자 ③이 최적형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CONTROL> BTB> MAX(PRO) 순으로 등급이 설정되어야 한다(Speas 1997, 2001).

주절에서 통제 받지 않는 영 주어는 내포되었을 때도 통제받지 않는다. 통제 받지 않는 영 주어에 대한 설명은 CONTROL 제약보다 BTB 제약을 상위 등급으로 설정함에 의해 가능하다.

(14) a. 영수$_i$는 철수$_j$에게 <$Ø_{j/k}$ 밥을 먹을지> 물었다.
b. 영수$_i$는 철수$_j$에게 <$Ø_{i/k}$ 내일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형 대신 명시적 대명사의 사용은 주절 요소의 통제를 막고 외부 요소의 통제만을 허용한다.

(15) a. 영수$_i$는 철수$_j$에게 <그$_k$가 밥을 먹을지> 물었다.
b. 영수$_i$는 철수$_j$에게 <그$_k$가 내일 온다고> 말했다.

영형 대신 명시적 대명사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MAX(PRO) 제약 역시 CONTROL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이다.

(도표 13)

영수는 철수에게 <Ø 내일 온다고> 말했다	BTB	MAX(PRO)	CONTROL
☞ ① [영수$_i$는 철수$_j$에게<Ø$_{i/k}$ 내일 온다고>말했다]			*
② [영수$_i$는 철수$_j$에게<그가 내일 온다고>말했다]		*!	

만약 한국어에서 CONTROL 제약이 BTB 제약과 MAX(PRO) 제약보다 상위 제약이라면 통제 받지 않는 내포절의 주어는 영형이 아닌 명시적 대명사가 최적형으로 선출될 것이다. 하지만 명시적 대명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강조를 위해 예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 무표적 표현은 아니며 또한 내포절 주어 자리에 사용될 경우 외부 요소만을 대용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통제받지 않는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 영형의 실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이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다린 어의 경우에도 한국어와 같이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 영형이 실현된다.

(16) Youngsoo$_i$ gen Chulsoo$_j$ shou <Ø$_{i/*k}$ lai mingtian>.
영수 에게 철수 말했다 온다 내일
'영수가 철수에게 내일 온다고 말했다.'

앞에서 만다린 어의 주절에서 실현되는 영 주어는 한국어와 같이 문장 외적 요소와 동일 지시로 확인되는 변항이었다. 하지만 내포절의 영 주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주절의 요소만을 가리키는 순수 대명사이다. 이는 CONTROL 제약이 BTB 제약이나 MAX(PRO) 제약보다 상위 제약임을 의미한다.

(도표 14)

Youngsoo$_i$ gen Chulsoo$_j$ shou Ø$_k$ lai mingtian	CONTROL	BTB	MAX(PRO)
① [Youngsoo$_i$ gen Chulsoo$_j$ shou <Ø$_k$ lai mingtian>]	*!		
☞ ② [Youngsoo$_i$ gen Chulsoo$_j$ shou <Ø$_i$ lai mingtian>]			
③ [Youngsoo$_i$ gen Chulsoo$_j$ shou <ta$_k$ lai mingtian>]			*!

CONTROL 제약을 BTB 제약보다 상위 등급으로 설정한 결과, 만다린 어 내

포절의 영 주어의 지시는 성공적으로 설명된다. 통제 영역 내에서 통제받아야만 이 문법성이 유지되는 영어의 주절의 영 주어와 만다린 어의 내포절의 영 주어에 관한 설명은 CONTROL 제약이 BTB 제약이나 MAX(PRO) 제약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살펴본 대로 한국어의 한정절의 통제받지 않는 영 주어의 분포는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을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함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Speas(1997, 2001)의 의견과는 달리, 만다린 어의 주절에서도 실현되는 영 주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제약의 등급 순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절에서 영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영어는 한국어의 화시적 기능의 영 주어나 스페인 어의 영 주어에 관한 설명처럼 CONTROL 제약을 최상위의 등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절의 요소와만 동일지시로 확인되는 중국어의 내포절의 영 주어의 지시도 제약의 동일한 등급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4.3.2. 대용적 기능의 영 목적어

다음과 같이 대용적 기능을 하는 목적어 자리 영형은 술어에서 어떠한 일치 자질도 발견할 수 없는 통제 받지 않는 영형이다.

(17) 철수가 Ø 만났어요.

위의 목적어 자리 영형은 통제 영역 내에 어떠한 일치 자질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 대상을 지배 범주 내에서 확인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을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해야 한다.

(도표 15)

철수가 Ø 만났다	BTB	MAX(PRO)	CONTROL
☞ ① [<철수$_i$가 Ø$_k$만났다>]			*
② [<철수$_i$가 Ø$_i$만났다>]	*!		

후보자 ①은 통제 영역 내에서 통제받지 않으므로 CONTROL을 위반하나 더 상위 제약들을 만족한다. 이에 반해 후보자 ②는 CONTROL 제약은 만족하나 더 상위 제약들을 위반하므로 최적형은 후보자 ①로 도출된다.

BTB와 MAX(PRO)가 CONTROL보다 상위 제약이면 한국어의 통제받지 않는 영 목적어의 분포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만다린 어도 통제받지 않는 영 목적어가 분포한다.

(18) *Zhangsan bu renshi Ø.
'장산은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
(Speas 1997: 413)

Speas(1997, 2001)는 만다린 어의 주절의 목적어 자리에 영형이 불허용됨을 주장하지만 Huang(1984)과 Li and Thompson(1981)은 주절의 목적어 자리에 영형이 허용됨을 보이고 있다. Speas(1997, 2001)의 그러한 주장은 순수 대명사가 아닌 변항으로 작용하는 영형은 그녀의 연구에서 제외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다린 어의 영 목적어도 한국어의 영 목적어와 같이 문장 외적 요소와 동일 지시로 확인된다. 따라서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을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지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절의 목적어 자리에 영 목적어의 분포를 금지하고 명시적 대명사만 허용하는 영어는 CONTROL 제약이 다른 제약들보다 상위 제약으로 작용한다.

(19) a. *Bill saw Ø.
b. Bill saw it.

목적어 자리에 영형이 불허용되고 대신 명시적 대명사가 허용되는 현상은 다음 도표로 알 수 있다.

(도표 16)

Bill saw Ø	CONTROL	BTB	MAX(PRO)
① [<Bill saw $Ø_k$>]	*!		
② [<$Bill_i$ saw $Ø_i$>]		*!	
☞ ③ [<Bill saw it>]			*

다음 예는 한국어의 목적어 자리 영형이 내포되어 실현될 경우이다.

(20) 돌이가 <순이가 Ø 괴롭혔다고> 말했다.
(Moon 1989: 103)

한국어의 내포절에서 실현되는 영 목적어는 주절의 주어에 대한 지시와 문장 외적 요소에 대한 지시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일 지배 범주(통제 범주) 내에 있는 주어에 결속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주절에서 목적어 자리 영형이 실현되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포절에서 실현된 영형도 통제 영역 내에서 일치 자질을 찾을 수 없고 또 지배 영역

내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BTB 제약과 MAX(PRO) 제약을 CONTROL 제약보다 상위 제약으로 설정하면 내포절 목적어 자리 영형의 분포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해결된다.

(도표 17)

돌이가 <순이가 Ø 괴롭혔다고> 말했다	BTB	MAX(PRO)	CONTROL
☞ ① [돌이$_i$가<순이$_j$가 Ø$_{i/k}$ 괴롭혔다고>말했다]			*
② [돌이$_i$가[<순이$_j$가 Ø$_j$ 괴롭혔다고>] 말했다]	*!		

통제받지 않는 영 목적어의 분포와 지시는 CONTROL 제약이 다른 제약, BTB와 MAX(PRO) 제약보다 하위 등급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어의 영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 각각의 통사적 분포와 지시의 확인 방법이 달랐다.

a. 화시적 용법의 영 주어
b. 일반적인 영 주어
c. 대용 기능의 영 주어와 영 목적어

기능에 따른 통사적 분포와 지시의 확인은 최적성 이론에 바탕을 둔 보편 제약의 서로 다른 위계 설정으로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peas(1997, 2001)와 Grimshaw and Samek-Lodovici(1998)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보편 제약을 도입하고 위계 설정을 통하여 영형의 통사적 분포와 그 지시를 확인하였다. 화시적 용법의 영 주어는 통제 영역 내의 일치 자질에 의해 그 지시가 확인된다. 지시가 일치 자질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명시적 형태가 아닌 영형으로 실현된다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약의 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CONTROL> MAX(PRO).

일반적인 주어의 생략, 특히 시간이나 날씨 구문에서 허사 주어의 생략은 해석상의 불필요에 기인한다. 이는 SUBJECT과 FULL-INT의 등급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FULL-INT> SUJECT.

그리고 대용적 기능의 영형은 CONTROL보다 BTB나 MAX(PRO)를 상위 제약으로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BTB> MAX(PRO)> CONTROL.

통제받는 영형과 관련하여 최상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CONTROL은 최상위 제약으로 설정되어야 했고 통제받지 않는 영형과 관련하여 최상의 후보자

를 선출하기 위해서 BTB가 최상위 제약으로 설정되어야 했다.

참 고 문 헌

Grimshaw, Jane (1997). Projection, Heads and Optimality. *Linguistic Inquiry 28.*

Grimshaw, Jane and Vieri Samek-Lodovici (1998). Optimal Subjects and Subject Universals. In Pesetsky et., al. (eds.), *Is the Best Good Enough? Optimality and Competition in Syntax,* 193-219. Cambridge, Mass.: MIT Press and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Huang, James (1983). A Note on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14, 554-561.*

Huang, James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 *Linguistic inquiry 15, 531-74.*

Kager, Rene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iversity Press.

Kameyama, Megumi. (1985). *Zero Anaphora: The Case of Japanese.*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Kameyama, Megumi. (1998). Intrasentential Centering : A Case Study, In: Walker et. al.(eds.),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Oxford: Clarendon Press.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McCarthy, John J. and Prince, Alan (1994).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 Beckman et, al.(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88-89.

Moon, Guisun (1989). *The Syntax of Null Argu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Hanshin Publishing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7). Optimality: From Neural Networks to Universal Grammar. *Science 275, 1604-10.*

Speas, Margaret (1997). Optimality Theory and Syntax: Movement and Pronunciation. Archangeli, D et. al.(eds.), *Optimality Theory.* Blackwell publishers. 171-199.

Speas, Margaret (2001). Constraints on Null Pronouns, In Geraldine Legendre et. al. (eds.), *Optimality-Theoretic Syntax*. The MIT Press. 393-426.

김 미 영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
전자우편 : Kmy0826@hanmail.net
Tel: 032-770-4419

접수일자 : 2004. 11. 23
수정본 접수 : 2005. 2. 14
게재결정 : 2005. 2. 23